

## 2023하동세계차엑스포장에서 ‘한복 패션쇼’ 펼쳐져

- 차를 주제로 찻잎, 차꽃, 6대 발효차 색상을 활용한 디자인
- 강명래 한복 디자이너가 제작 및 구성, 천연염색 활용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제 1행사장 주무대에서 지난 26일 엑스포 및 한국의 멋을 홍보하기 위해 ‘찻잎 살포시 내려앉다’를 주제로 한 ‘한복 패션쇼’가 펼쳐졌다.

강명래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제작한 옷을 활용한 이번 패션쇼에서는 차를 주제로 찻잎, 차꽃, 6대 발효차 색상 등을 활용해 디자인한 옷을 선보였으며, 모든 옷은 흰색 원단에 천연염색으로 직접 염색한 의류가 사용되었다.

한복 디자이너인 강명래씨는 지난 2022년 (사)한문화진흥협회가 위촉하는 한복 홍보대사, 한복 외교사절단에 선발되기도 했으며, 한복 세계화와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해왔다.

행사 관계자는 “2023하동세계차엑스포장에서 차(茶)를 주제로 한 한복 패션쇼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며, 엑스포는 물론 한국의 멋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행사부 정진희 팀장(055-880-70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